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9화 죽림정사의 건립



이 때 니련선하(尼連禪河)의 허류에는 우루빌바 카사파의 두 동생인 나디 카사파(Nadikaspa)와 가야 카사파(Gayaksapa)가 각각 300명과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역시 형과 같이 불의 신 아그니를 모시며 교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형님의 뒤를 따라 모두 붓다의 구족계를 받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카사파 삼형제와 그들이 거느린 일천 명의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께 들어오면서 붓다의 승가(Sangha)는 일거에 마가다국 제일의 교단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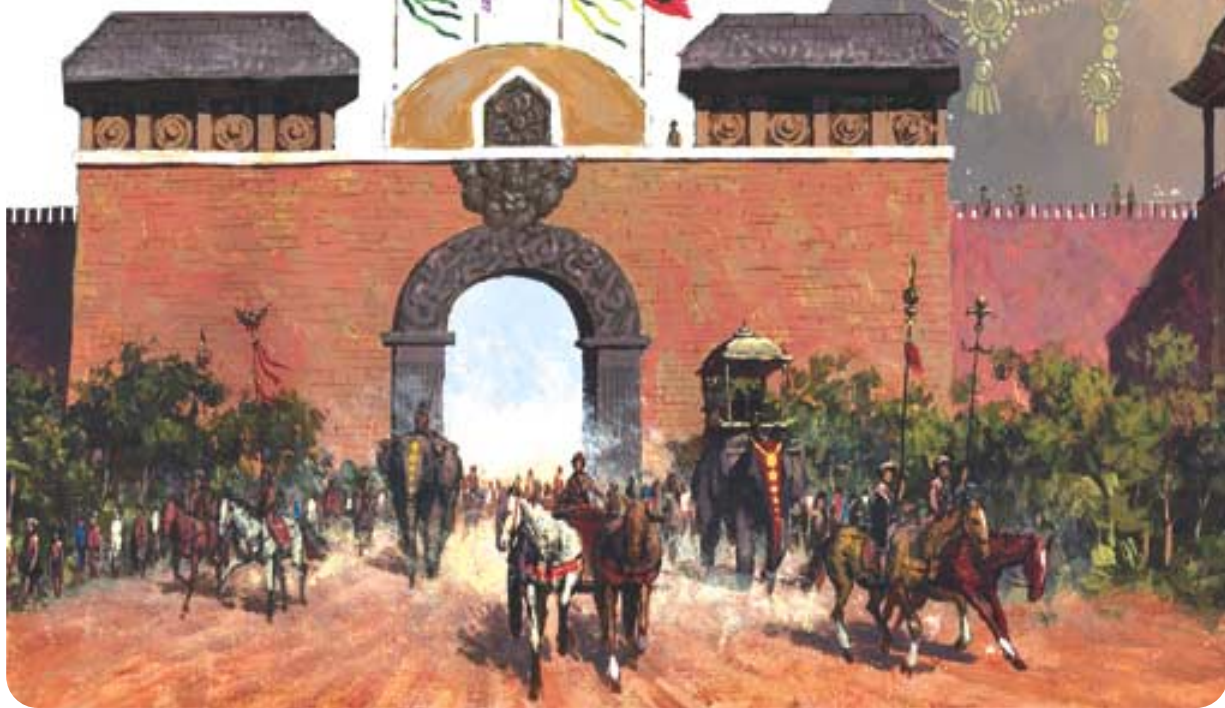
한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열중했던 붓다는 이제 어느 정도 불자로서의 입문교육이 끝났다고 보고 일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다(Magadha)의 수도 라즈기르(Raja-grha, 王舍城)를 바라보고 떠났다.

부처님이 일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다의 서술인 라즈기르(王舍城)의 서남쪽 교외에 있는 랫티바나라 숲 속까지 진출한 후 스파티타 묘(廟)에서 쉬고 있을 즈음, 부처님과 카사파 삼형제의 놀라운 이야기가 빠른 속도로 왕사성에 전해지고 있었고 이 놀라운 소식은 빔비사라(Bimbisara)왕에게 보고되었다.

“사카무니(釋迦牟尼)라고 했느냐? 그러면 몇 년 전에 이곳에 왔었던 그 사카족의 태자인 싯타르타가 아닌가? 그때 그 태자는 나와 약속하기를 그가 성도(成道)하여 붓다(Budha, 佛)가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와 그의 깨달음을 들려주겠다고 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만약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카사파 바라문께서 스스로 아그니의 신전을 부수고 그 사카무니에게 귀의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싯타르타 태자가 이미 붓다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빔비사라(Bimbisara)왕은 곧 사자를 파견하여 붓다를 초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맞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빔비사라(Bimbisara)왕의 특명을 받은 사자가 왕의 초청 편지를 들고 아직까지 스파티타 묘(廟)에서 쉬고 있는 붓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바람같이 달려 나갔다. 한편 라즈기르 성내에서도 붓다 일행을 맞이 위해 모든 거리와 골목이 깨끗이 청소되었고 꽃을 놓아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하루 이를 기다리던 빔비사라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백성 수만 명을 이끌고 붓다를 만나기 위하여 라즈기르의 동쪽 바이바라(Vaibhara) 언덕과 소나(Sona) 언덕 사이에 위치한 제티안(Jethian, 杖林)까지 나아갔을 때, 마침 왕의 초청을 받고 라즈기르로 향해 오고 있던 붓다의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왕은 즉시 코끼리에서 내려 예의를 갖추고 붓다를 맞았다.

실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붓다와 빔비사라왕은 곧 제티안(Jethian, 杖林)의 시원한 그늘을 찾아 마주 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싯타르타 태자가 장차 차크라 바르틴(Cakra-Vartiraja, 轉輪聖王)이 되기 위하여 마가다를 엿따라 오지 않았을

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만났었다. 그러나 이번엔 사카무니(釋迦牟尼)가 붓다(佛)가 되어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빔비사라왕은 너무나 박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붓다에게 고백한다.

“붓다여, 나는 아직 태자였을 때 다섯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을 모두 성취했습니다. 그것들은 첫째, 관정(Abhiseka, 灌頂)을 받아 국왕이 되는 것, 둘째, 나의 영토에 성자인 정등각자(正等覺者)가 오는 것, 셋째, 붓다를 내가 모시는 것, 넷째 붓다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내가 비록 마가다의 국왕이지만 그동안 복을 닦으려고 불신(火神, Agni)을 섬기며 우루빌바 카사파를 도와 거대한 신전을 지어 올려 공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도 불을 섬기고 주술을 닦았는데,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 번뇌 또한 더 커져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우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법(法)에는 ‘내(我)’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의식이 특별한 형태로 나타났을 때만 일어난 현상입니다. ‘나’가 있음으로 해서 온갖 불행과 괴로움, 분노와 원한 등이 생깁니다.”

“대왕이시여, 우리들의 육체도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육체란 돌과 같아서 번민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我)’라는 생각은 나와 반대에 있는 상황이 부딪혔을 때 반쪽 공중에 떠오르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것은 돌과 돌이 부딪혀 불꽃이 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꽃은 돌의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것인가?

대왕이시여,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불꽃과 같은 한순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조그마한 진리를 알기 위하여 6년간의 수행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백성을 생각하고도 ‘나’를 잊어버리고 중생을 격정하며 ‘나’도 ‘중생’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완전히 없게 되어 마음이 우주에 확대될 때 비로소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그곳에는 생(生) 사(死)가 없습니다. 그곳에 ‘나(我)’란 없으므로 태어나기 이전, 죽음의 이후도 없는 것입니다.”

붓다의 설법을 듣고 있는 동안 빔비사라왕은 그 마음이 점점 맑아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쁜 환희를 조금이라도 더 맛보기 위하여 왕은 붓다와 그의 일천 명 제자들을 모두 초청하여 왕으로서 첫 번째의 공양(Pujan)을 올린다. 이때 카란다라는 사람이 빔비사라왕과 붓다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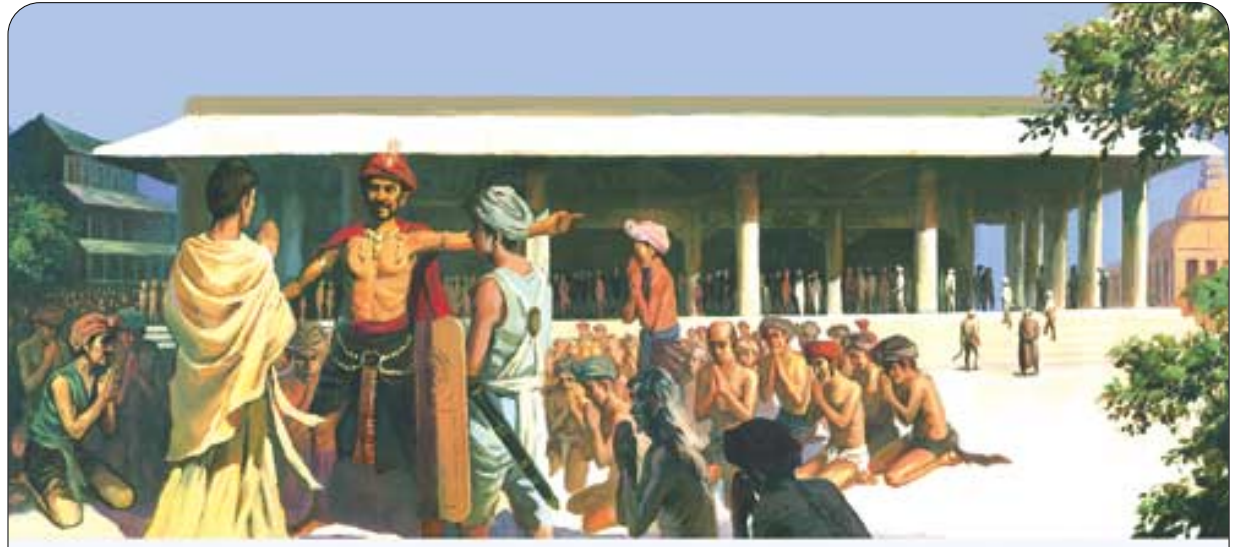
“붓다시여, 저는 카란다(Karanda)라는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붓다의 설법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붓다의 고마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어젯밤 꿈꿈히 생각해보니 붓다께서 언제까지나, 이곳에 계시는 리가 없으시겠기에 불안했습니다. 저는 붓다를 가까이 모시고 그 귀중한 말씀을 계속 듣고 싶는데, 만약 붓다께서 훌쩍 떠나버리시면 제 생활기반을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사옵니까?”

“카란다 장자여, 너의 마음이 과연 너의 마음과 똑같구나. 나도 지금 부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사원을 지어 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은 이곳에서 너무 멀어서는 곤란하고 또 너무 가까워도 안된다고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붓다를 찾아뵙고자 할 때는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번거롭게 해서도 안 되는 곳, 밤에는 소리가 없어 조용하고 홀로 앉아있기에도 알맞은 곳, 그런 곳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로다.”

“그런 곳이라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베누바나(Venuvana) 동산밖에 없사옵나. 그곳이 바로 대왕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곳으로 심심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죽림원(竹林園)입니다. 제가 가까이 그 곳을 붓다께 바칠 것이니 대왕께서는 그곳에 아름다운 사원을 지어주소서, 그리하여 붓다를 그 곳에 머물게 하시면 우리 모두의 소원을 풀 수 있게 되옵니다.”

“아, 그 생각 참으로 가뭇하도다. 네가 정말로 아름다운 베누바나 동산을 바친다면 내 그곳에 인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원을 지어 붓다께 바칠 것이다. 이로써 우리 마가다국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마가다의 백성들은 모두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또 있겠는가. 사원의 건설은 내일부터 곧 착수하여 우리가 오기 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전 국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리하여 불교 최초의 절 죽림정사(竹林精舍)가 지어지게 되었다. 죽림정사는 ‘Venuvana-Kalanda-Kanivapa’ (베누바나 카란다 카니바파)라 불리우는데 베누바나(Venuvana)는 대나무동산(竹林園)이고 카란다(Kalanda)는 동산을 기증한 부호장자의 이름이며 카니바파(Kanivapa)는 ‘다람쥐를 먹이는 장소’라는 뜻이다. 정사(精舍)의 경내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한다.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Venuvana)가 완성되자 사르나트(Sarnath)에서 포교를 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던 제자들도 차츰 이곳으로 모여 들었다. 이것으로 불교(佛敎)교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계도 진입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